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의 집주인 임대료 구제를 위해 1억 2,500만 달러 발표

세입자가 뉴욕의 긴급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사 나간 집주인들을 돕기 위한 주정부 기금 지원

집주인들은 뉴욕주 임대료 보조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기금 지원을 현재 신청 가능

보조금 8억 4백만 달러, 63,000건이 집주인에게 지불되도록 승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세입자가 신청 과정에서 참여해야 하는 연방 요건으로 인해 뉴욕주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ERAP)에 참여할 수 없는 집주인들을 돕기 위하여 주정부 기금 1억 2,5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주인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실행으로, 10월 7일 목요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집세를 내지 않고 이사를 나가서 연방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집주인들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연체된 집세를 제공합니다. 소형-중형 규모 건물을 소유한 집주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구제금이 뉴욕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취임 당일부터 제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뉴욕주의 집세 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이 절실했던 수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이미 제공되어 뿌듯합니다. 하지만 연방 규정 때문에 구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집주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기금은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팬데믹에서 회복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뉴욕주 상원 주거 위원회 의장이자 새 기금 지원을 승인한 법원의 지지자인 **Brian Kavanagh**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저희는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이 초래한 역경 때문에 집을 잃고 임대료 체납의 장기적 부담에서 보호받도록 보장하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퇴거 및 압류 중지와 비상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커다란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러한 계획의 효과성이 향상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 기금 ERAP 프로그램 하에서 지원금 수령 대상이 아닌 체납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한 새로운 주정부 기금 지원은 진정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세입자가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한 후에

아파트를 떠난 집주인들이 이제 지원금 수령 대상이 되어, 이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 부채가 더 이상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뉴욕 주민들이 필요하고 받을 만한 구제책을 받도록 보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이 기금 지원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리며, 이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되도록 수고한 행정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집주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시장 공정 임대료 150 퍼센트 이하로 임차한 세대를 소유해야 하며, 2020년 3월 1일 이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거나 비상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여 집세가 연체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0 세대 이하의 건물을 소유하고 프로그램 개시일인 10월 7일 목요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하는 집주인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뉴욕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한 집주인들은 [온라인 포털](#)에서 기존 계정을 통하여 주 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직 계정이 없는 경우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누적된 연체금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otda.ny.gov/lra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TDA 부 최고 커미셔너 Barbara Gui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가 주정부 기금 지원은 자신의 잘못 없이 연방 지원금에서 배제된 집주인들에게 반가운 혜택입니다. 이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인지하고 긴요한 주정부 자금을 확보한 데 대하여 Hochul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달, Hochul 주지사는 2022년 1월 15일까지 주거 퇴거 중지를 법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해 세입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세입자가 집세를 밀린 채 이사를 나간 집주인들을 돕기 위해 1억 2,500만 달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지난 달, 잔액 축소와 뉴욕 주 전역에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으로 인하여 뉴욕의 비상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에 발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서 집주인들에게 63,000 건 이상의 직접 지불로 총 8억 4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승인하였습니다. 각 주별 ERAP 실행을 추적하는 전국 저소득 주거 연맹(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뉴욕주는 임대료 보조금으로 18억 달러를 배정 또는 지불하여, 기금 배정에서 전국 1위이며 직접 지불에서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뉴욕주의 ERAP는 집주인이 지불금을 발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급된 연체를 거부하더라도 승인된 세입자에게 퇴거 보호책을 제공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